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, **천년 전북!**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· 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· 담당 : 산업경제연구부 황영모 연구위원
(063-280-7132)

보도시점 : 2019년 10월28일(월)부터

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사례분석과 활성화 시사점 제시

적극적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
비즈니스 거점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관건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조직*은 농산물의 생산~가공~판매뿐 아니라 지역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.

* 사회적경제 조직 : 농촌공동체회사,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협동조합 등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정책 브리프 "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-완주군 사회적경제 사례"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제안했다.

- 완주군은 '로컬푸드' 방식으로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'로컬푸드'를 넘어 '사회적경제'로 농촌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, 개별 조직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이다.

- 완주군의 사회적경제는 2008년 '로컬푸드'로 거슬러 올라간다. 로컬푸드 꾸러미,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, 공공·학교급식지원센터, 로컬푸드 직매장, 거점농민가공센터 등을 통해 농촌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'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'으로 해결해 오고 있다.

- 특히 2017년에는 로컬푸드와 지역공동체 정책의 성공을 바탕으로 '완주 사회적경제 소셜굿즈 2025 플랜'을 통해 관련 조례 제정, 전담부서 설치, 정책추진 등 '통합적인 사회적경제'로 정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.
-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요인은 '①개별 조직의 설립·운영, ②사회적경제 비즈니스 거점 구축, ③사회적경제 지원체계' 등으로 분석되었다.
- 첫째, 주민의 필요와 지역 요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직화하고,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, 사업에 필요한 물적기반과 안정적 판매망을 갖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.
- 둘째,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'사업장'을 꼽을 수 있다. '농가 레스토랑, 농촌가공 사업장, 체험마을 사업장, 로컬푸드 직매장, 거점농민가공센터' 등을 통해 '일자리-상품화-소비화'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.
- 셋째, 단계별로 정책을 진화(지원정책, 전담부서, 지원조례 등)시키고, 중간 지원조직이 정책실행 지원과 주민역량 강화를 맡고, 연대조직으로 '사회적경제네트워크'를 통해 긴밀한 연대와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부장)은 '농촌의 현실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한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'고 강조하였다. (끝)